

“코로나19 고통 분담 함께 합니다”

금호타이어·금호고속 등 지역 기업, 임원 월 급여 20~40% 반납 한전·aT 등 혁신도시 공기업 임원·간부 직원도 급여 반납 동참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에 처한 지역 기업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고통 분담을 위한 급여 반납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 3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대표이사는 월 급여의 30%, 기타임원은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전대진 금호타이어 사장을 필두로 한 전 임원진은 최근 긴급 비상경영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경비예산을 줄이는 등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금호타이어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업체는 코로나19 사태로 초기 중국산 원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에 차질을 빚어왔고,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완성차업체가 일정 기간 섰다온 등 생산 감축을 결정하게 됐고, 타이어 산업을 비롯한 부품사들 역시 납품 감소로 인한 실적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2분기 10분기만에 영업 흑자 전환을 달성하고, 이후 3분기 연속 흑자를 유지해오며 창립 60주년을 맞아 매출 확대를 통한 재도약의 발판을 다져왔던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악재가 겹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임원진의 임금을 반납하는 등 전사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게 됐다는 게 금호타이어의 설명이다.

이밖에 지난 2월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과도한 주가 하락에 대응하고 주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임원진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등 책임경영을 펼치고 있다.

앞서 버스 이용자 급감으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금호고속도 임원진의 임금을 20% 반납하고 있다.

또 사무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단기 희망 무급휴직도 최근 승무원과 기술사원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아시아항공 역시 지난 2월 모든 임원 일괄사표 제출, 임원·조직장 급여 반납(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 조치를 한 것에 이어 이달 임원·조직장 급여 반납률을 확대(사장 100%, 임원 50%, 조직장 30%)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들도 임금 반납에 나서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다.

우선 한국전력과 한전KPS, 한전 KDN 등 그룹사에 따르면 김종갑 한전 대표이사 등 각사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월 급여의 10%씩 1년 급여 120%를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에

쓰기로 했다.

차·실장급 직원은 월 급여의 3%(1년 36%)를 반납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거래소 조영탁 이사장과 상임 이사로 월 급여의 10%씩을 반납하고, 차·실장 간부는 10개월 동안 월 급여의 3%를 반납한다.

한국농어촌공사도 김인식 사장과 상임 이사·부서장급 이상 임원 10명이 4개월간 월 급여의 30%를 내놓기로 했다.

임금 반납에는 부서장급 130여 명도 동참하며 일반직원은 이달 중순부터 자발적 성금 모금을 벌이고 있다.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쓰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병호 사장과 상임임원은 월 급여의 30%를 4개월간 반납한다. 1급 이상 간부급 직원은 일정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내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754.64 (+37.52)	↓ 금리(국고채 3년)	1.07 (-0.03)
↑ 코스닥	569.07 (+26.96)	↓ 환율(USD)	1217.40 (-7.00)

광주은행,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3년 연속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발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사진)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한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에서 3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올해로 22회를 맞는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지난 1998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브랜드관리 모델로서 대한민국 소비생활을 대표하는 각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 기업의 브랜드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평가제도다.

광주은행은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사회환원을 펼치며 올해를 포함 2018년, 2019년에도 지방은행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0세 미만 소비자 1만18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통해 진행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송 행장은 “이번 쾌거는 한결 같은 성원을 보내준 광주·전남 지역민과 고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최근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기준이 상품 및 가격 중심의 효율에서 서비스의 질과 만족 중심의 효율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서비스, 브랜드 홍보에도 트렌드에 발맞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의 디지털화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도 고객의 마음을 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진심을 담은 고객과의 소통 등이 ‘광주·전남 대표은행’이라는 광주은행의 브랜드 강화에 힘을 실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공공기관 조달 ‘벤처나라’ 상품 광주 5개·전남 8개 기업 선정

창업 7년 이하 기업이 공공기관에 조달할 수 있는 ‘벤처나라’ 상품에 광주 5개·전남 8개 기업이 선정됐다.

광주지방조달청은 3월 벤처나라 상품으로 지정된 전국 125개 기업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이 13개 포함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지역 선정기업은 광주 ㈜코비스·엔서치랩·이드앤·아이론·에너지플래닛과 전남 ㈜화진산업·대한한옥개발·맘키드크래프트·다담팜테크·인코몬바이오키오스메틱·휴먼아이티솔루션·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제이엠엘이디 등이다.

이들 기업의 대표 상품은 ‘재생플라스틱 한식 기와’, ‘사물인터넷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하이드로겔 마스크’, 살균 소독기, 공기정정기 등이 있다.

지정된 상품은 창업·벤처기업 전용물인 ‘벤처나라’에 등록돼 최대 5년까지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판로를 지원받게 된다. 선정되면 3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2016년 10월 구축된 벤처나라에는 지난 2월 말 기준 1175개 기업, 7788개 상품이 등록됐다.

이들 물품은 745억원 상당 거래 실적을 거뒀다. 광주·전남지역 업체가 지난 3년간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은 총 45억원 정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세계, 코로나 방지 투명 칸막이 설치
㈜광주신세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1일 매장 1층 고객서비스센터 등 주요 공간 5곳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출입구에 터널형 소독 분사기를 운영하고 있다.

위니아SLS, ‘위니아에이드’로 사명 변경

렌탈·AI 등 사업 다각화

위니아SLS는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위니아에이드’(WINIA AID)로 변경하고 고객중심의 통합플랫폼 회사로 변화를 꾀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사명 변경은 종합서비스회사로 국내에서 입지를 다져온 위니아SLS가 렌탈,

홈케어서비스, 건강가전 제조, 통신사업, 글로벌 유통사업, 인공지능(AI) 첨단사업 등 새로운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위니아에이드는 설명했다.

백성식 위니아에이드 대표이사는 “사명 변경은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위니아에이드의 기업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며 “민

수 있는 제품판매, 고객만족 서비스, 효율적인 물류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항상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7월 위니아답체서비스(구 대우위니아서비스)와 위니아대우서비스(구 대우전자서비스)가 합병해 탄생한 위니아에이드는 현재 전국 200여 개 전속 매장을 통해 위니아답체와 위니아대우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가전 최대 30%·화장품 80%·의류 75% 싸게 팔아요

롯데 유통 4개사 2~22일 광주 월드점점 등서 행사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은 오는 2일부터 22일까지 롯데아웃렛 광주월드점점과 남양점 등에서 유통 계열사인 하이마트, 톱스, 롯데홈쇼핑과 대형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행사에서 선보이는 물량은 100억원 상당으로, 가전제품 최대 30%·화장품 최대 80%·의류 최대 75% 할인 판매한다.

하이마트는 롯데아웃렛 광주월드점점(~15일)과 남양점(~8일)에서 70억원 상당 전자제품을 내놓는다.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구입가의 10%를 정부에서 현금해

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을 활용하면 할인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롯데 측은 설명했다.

9·15일 롯데아웃렛 남양점에서는 롯데 홈쇼핑 인기 브랜드 제품을 최대 75% 할인가로 선보인다.

이외 롯데아웃렛은 2·8일 ‘헝지 패션 그룹전’, ‘봄 스니커즈 페어’, ‘소다 패밀리 세일’ 등 자체 패션 할인전도 벌인다.

정운성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장은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매우 위축된 상황에서 만큼 업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행사를 마련했다”며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롯데의 유통계열사와 함께 합리적 가격대의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지원’ 대상 모집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2020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을 모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들이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약 20여개 협동조합이며, 조합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4월 1일부터 29일까지다.

모집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3일까지 조합별 신청을 받아 개별 진행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조선의 신작 시집

꽃, 향기의 밀서

꽃, 향기의 밀서
조선의 시집

본시 땅위에 길이 없어 가는 사람에게만 길이 된다. 꽃도 풀이었다가 꽃으로 보는 사람에게만 꽃이 된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꽃의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내통해야만 꽃의 생애가 보이고 향기의 밀서도 받게 되는 것이다. 빛으로 오롯이 쌓아올린 철용성이 침묵의 결박을 풀고 물마루를 건너와 이야기하는 물옥잠의 향기로 밀어 귀를 기울인다. 꽃의 속삭임에는 애처로운 누이의 생애와 어머니의 새카맣게 애간장 타는 속울음이 있다. 꽃마다 대지의 조근조근한 숨길을 건너온 계절이 있다.

- 김광희시인

조선의 시인은 꽃의 시인이다. 일찍이 김춘수 시인이 무의미한 사물을 호명해 ‘꽃’으로 상징되는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했다면, 조선의 시인은 우리의 인식망에서 멀리 있던 실제 꽃들을 찬찬히 불러들여 고유의 향기를 부여했다. 꽃은 향기로 숨 쉰다. 그래서 꽃은 향기로 실존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시인의 꽃시는 꽃을 읽은 우리 시단의 꽃심이요, 향기 없는 세상의 꽃씨다. 시인의 시집을 읽노라면 마치 시인이 테리고 나온 꽃들과의 나들이에 초대받은 기분이다. 향기 풀풀 나는 초대연에 한껏 취하고 만다.

- 김원수시인

조선의 프로필

농민신문신춘문에 당선
김만중문학상
신석정초물문학상
현. 서은 문병관 문학연구소 초빙교수

기독신문문에 당선
거제문학상
안정복문학대상 등 수상

조선의 시집

『당신 반칙이야』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어쩌면 쓰러린 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돌이라는 새,
“꽃, 향기의 밀서,”

시인 조선의